

# 지방재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 전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43억원 넘는 세입 거둬들인 사례 우수성 인정받아

전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를 조사하면서 43억 원이 넘는 세입을 거둬들인 사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시는 최근 지방재정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평가'에서 '부동산 불법거래에서 잡은 세외수입 계우기'를 주제로 발표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를 줄여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시에, 세외수입 증대 등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효과를 거둬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간 잠자고 있던 세입을 발굴했던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실제로 시는 투기세력 유입으로 부동산 이상거래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된 지난해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특별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조사단을 꾸려 부동산 불법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시가 조사한 자료는 12만 장에 이르며, 이러한 자료를 3회에 걸

쳐 교차검증해 조사에 신중을 기하면 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집중했다.

또한 시가 지난해 말까지 약 19억 60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한 것은 전년 기준 부동산 관련 과태료 전국 세입인 87억5000원의 22.4%에 해당하는 괄목할만한 징수실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9월 '2021년 전라북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이 같은 사례로 발표를 진행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 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신고기간내 법적 요건 갖춰 허가·연장 신청하는 간판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

전주시는 다음 달 3일부터 4월 말까지 신고·연장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는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는 광고주의 경우 행정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뒤 간판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된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상 3년을 주기로 연장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 도록 돼 있으나 이 같은 절차를 볼라 요건을 갖춰주지 않거나 허가·신고하지 않은 채 간판을 설치·방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법적

요건을 갖춰 허가·연장 신청하는 간판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한 면이 10㎡ 이상인 벽면간판, 높이가 5m 이상이고 한 면이 1㎡ 이상인 돌출간판과 옥상간판 등은 허가 대상 광고물에 해당된다. 면적이 5㎡ 이상인 벽면간판, 높이가 5m 미만 또는 한 면이 1㎡ 미만인 돌출간판 등은 신고 대상이다.

이미 설치한 광고물이 허가 대상에 해당되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은 광고주는 허가신청서와 간판 설치 주변 사진 및 광고물 원색도안, 설명서 및 설

계도서를 제출하면 된다. 토지 및 건물에 본인 소유가 아니라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신고 대상 광고물이라면 신고서와 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허가·신고 접수처는 완산·덕진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이와 동시에 시는 건물의 외벽 등에 설치하는 고정광고물의 견고성 등이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 태풍, 호우 등 재해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직업인 꿈 멘토단' 활동 평가회 열어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주시 꿈드림사업의 협력단체인 '직업인 꿈 멘토단'과 함께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평가회를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지역 내 직업훈련기관 및 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직업인 꿈 멘토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진로탐색 및 직장체험, 취·창업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올해 꿈 멘토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직무 기초 역량교육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주력했다. 총 35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버리스타, 한식조리기능사, 컴퓨터 활용능력, 드론 등 다양한 직업훈련에 참여해 이중 21명이 해당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



하는 결실을 맺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24명을 대상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 △경영·회계·사무(2명) △음식서비스(21명) △인쇄·목재·가구·공예(1명) 관련 직업체험을 진행했으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자체 프로그램인 '취업대비반'과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등 취업 지원에 힘썼다.

정혜선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신 멘토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능력 중심 채용 트렌드에 발맞춰 인턴십 등 직업 체험을 보다 강화해 직무역량을 기르고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전액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jisangdam.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27-1005)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 "청년소통공간 '비밀' 무료로 이용하세요"

### 전주시, 커피마리안·스페이스코워 전북도청점·다부부컴퍼니·리젠카페 등 지정

마땅한 모임 공간이 없거나 대관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청년들은 전주시가 무료로 제공하는 청년소통공간 '비밀'을 이용하면 된다. 2022년 새해에는 진북동 전주교육문화회관 인근에도 새로운 '비밀'이 문을 연다.

전주시는 청년소통공간 '비밀' 지정 협약을 체결한 △커피마리안(금암동) △스페이스코워 전북도청점(효자동) △다부부컴퍼니(덕진동) △리젠카페(진북동) 등 4곳이 다음 달 1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비밀 1호점(리젠커피).

지난 2017년 운영을 시작한 청년소통공간 '비밀'은 만 18~39세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 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회의와 모임,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장소로, 전주시와 민간 사업자의 협력을 통해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청년들에게 무료로 대관된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에는 진북동 권역의 리젠커피가 '비밀'로 신규 지정됐으며, 고사동 '우개'는 운영

되지 않는다. 전북대 신청문에 위치한 커피마리안과 전북대 구정문의 다부부컴퍼니, 서부신시가지 소재 스페이스코워 전북도청점 등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청년들에게 개방된다.

이용을 원하는 청년은 이용 24시간 전까지 전주 청년온라인플랫폼(youth.jonju.go.kr)에 신청하면 된다. 이용시간은 모임 당 3시간까지 가

능하다. 이에 앞서 청년소통공간 '비밀'에는 청년 6000여 명의 스터디 및 회의 공간으로 약 1500회에 걸쳐 활용됐다.

'비밀'을 이용한 한 청년은 "마땅히 회의를 할 장소가 없는데 이런 공간이 있어서 좋다"며 "스터디를 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매우 유용한 공간이 되고 있다"고 이용 소감을 전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보건소, 디지털 헬스케어 수행 실적 '우수'

### 우수 보건소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 수상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가 건강행태 개선에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잘 제공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대회'에서 수행 실적 우수 보건소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해온 시 보건소는 65세 이상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블루투스 기반 건강미션 어플인 '오늘 건강'과 건강측정장비를 활용해 노인 건강미션 실천 사업과 건강상태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운영해왔다.

시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노인들의 건강 행태개선을 유도한 결과 코로나 19 상황임에도 △걷기운동 증가 △식생활 점수 상승 △만성질환 조절률 증가 등 건강 개선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아 재참여 희망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의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대면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증진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 주관한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성과대회'에서 수행 실적 우수 보건소로 선정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상했다.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